바이오 인식제품 시장확대 본격화

정통부, K-NBTC 개소식 ... 7월 표준 적합성시험에 전자여권 서비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 개소식을 가졌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K-NBTC는 국산 바이오인식제품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검증하는 시험서비스와 정부기관 시범사업의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표준에 적합한 바이오 인식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바이오 인식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바이오 인식 시장규모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기업의 지문·안면인식기술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국산제품의 정확성·호환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주는 시험기관이 없어 수출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K-NBTC는 이에 따라 7월부터 바이오인식 관련 국제규격의 준용 여부를 검증하는 표준 적합성 시험서비스와 전자여권 발급 등 정부기관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단계적으로 국제통용 ID카드에 탑재될 지문인식 데이터포맷의 호환성 검증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시험기관과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등 국제적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04>